

266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18. 12. 24



—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19년 주요 경제 이슈

김범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발행인 : 서왕진

편집인 : 최 봉

발행처 :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19년 주요 경제 이슈

	요약	3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4
II.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7
III.	시민 관심 경제 이슈: 2019년 주요 경제 이슈	19
	부록: 2018년 4/4분기 주요 조사결과	22

김 범 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76
kbs@si.re.kr

제조업 생산은 하락했지만 서울경제에서 비중 큰 서비스업의 생산은 증가세 지속

서울경제에서 90% 내외에 달하는 서비스업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2018년 3/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서비스업생산지수」는 3/4분기에 전 분기(4.5%)보다 증가세가 약화되었지만, 2013년 3/4분기(-1.2%)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8년 10월에 전년 동월 대비 1.3% 하락했고,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도 전년 동월보다 7.1% 하락했다. 11월 중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1.3% 감소한 508만 9천 명이며,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9% 증가한 85만 9천 명을 기록했다.

서울시민 체감경기는 전 분기보다 소폭 하락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8년 4/4분기 94.4로 전 분기 대비 1.5p 소폭 하락했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0.3p 하락한 87.4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도 전 분기보다 2.7p 하락한 91.1을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1.2p 하락한 69.2,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보다 2.4p 하락한 83.6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도 각각 전 분기에 비해 0.5p, 1.9p 하락한 112.1, 96.2를 기록했다.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태도지수」와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도 전 분기보다 하락하였다. 「물가예상지수」가 소폭 하락하는데 그치고, 「고용상황전망지수」는 하락하면서 전 분기보다 물가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고용 창출의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1순위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내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1위는 1순위 기준으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33.1%)로 조사되었다. 그다음은 ‘부동산 경기’(12.6%), ‘최저임금 인상’(9.2%), ‘생활물가 상승’(7.4%),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5.0%), ‘남북경협’(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서울시민 대부분은 경제 이슈가 내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13개 경제 이슈 중 개선 전망 점수가 기준치(100)를 웃도는 이슈는 ‘4차 산업혁명 대응’뿐이고, 나머지 이슈는 기준치를 밑돌았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이 200점 만점에 102.4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주식시장’(99.7점), ‘남북경협’(98.0점), ‘에너지 정책’(97.5점), ‘부동산 경기’(96.8점) 등의 순이며, ‘소득양극화’는 87.3점으로 개선이 가장 힘들 것으로 보았다.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제조업생산은 하락했지만 서비스업생산은 증가

2018년 3/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

- 2018년 3/4분기 서울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07.6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
 - 3/4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 분기(4.5%)에 비해 증가세가 약화되었지만, 2013년 3/4분기(-1.2%) 이후 증가 추세 유지
 - 업종별로 보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8.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7.5%), 금융 및 보험업(6.2%) 등이 증가한 반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1%), 숙박 및 음식점업(-2.1%), 부동산업(-1.7%) 등은 감소
- 2018년 10월 중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112.7로 전년 동월 대비 7.1% 하락
 - 10월 중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를 공업구조별로 보면, 경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하였지만, 중공업 생산이 전년 동월보다 17.5%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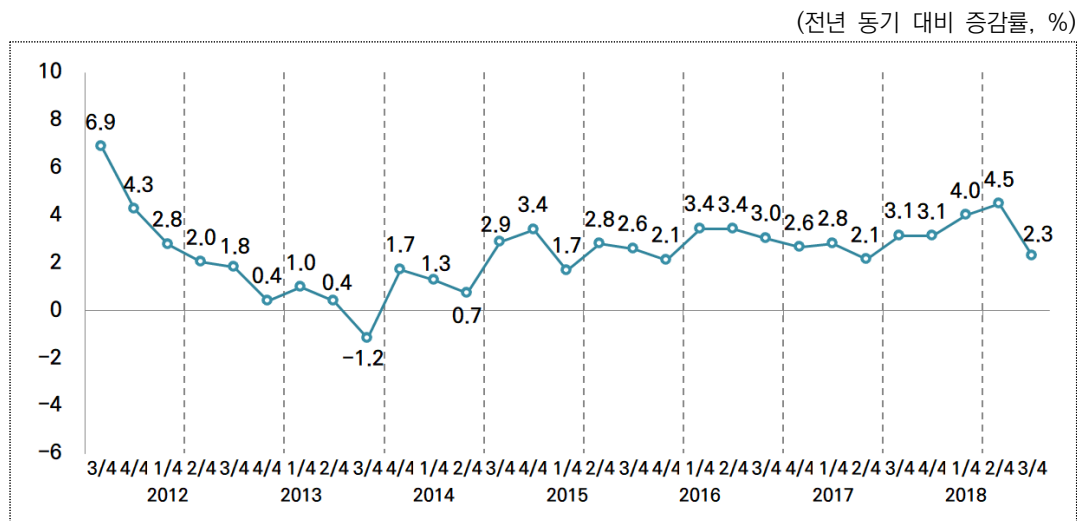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불변지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¹⁾

1)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보정 때문에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²⁾는 작년 같은 달보다 소폭 감소

- 2018년 10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3.2로 전년 동월 대비 1.3% 하락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8년 6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10월 들어 처음으로 소폭 하락(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1.7%)
- 부문별로 보면, 10월 중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에 견줘 4.1% 증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판매액이 11.9% 감소
- 백화점 판매액은 2018년 6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5.1%)
- 대형마트 판매액은 2018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부진하다가 9월에 소폭 상승(1.7%)하였지만, 10월 들어 다시 큰 폭으로 하락(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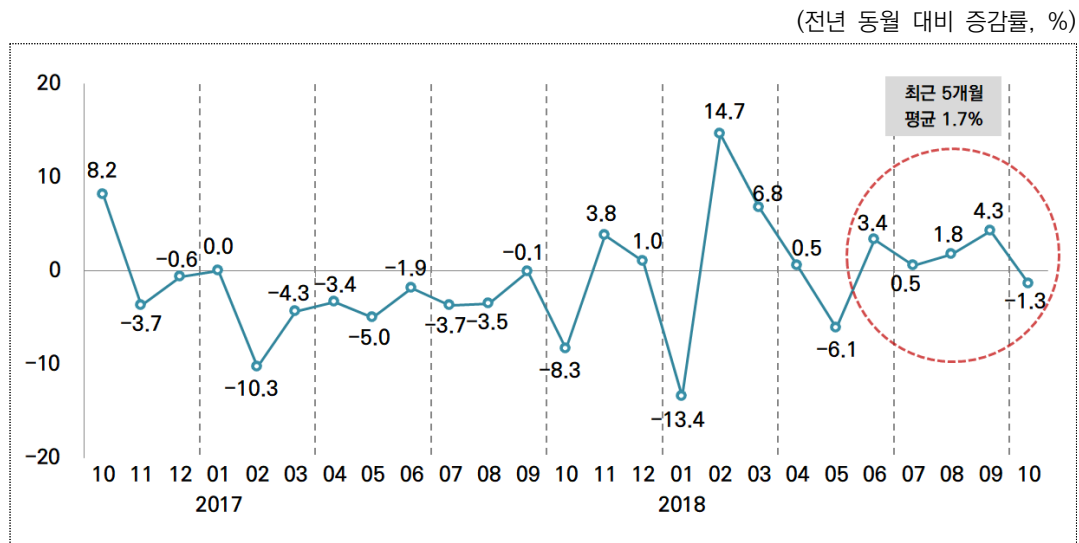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금액)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¹⁾

2)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비롯해 제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모두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뀌면서 변경 이전의 수치가 바뀌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0년 기준에는 대형마트에 대형할인점, 면세점, 아웃렛이 포함되었지만, 2015년 기준부터 대형마트에서 면세점과 아웃렛이 제외되었다.

전체 「취업자 수」³⁾는 감소했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증가

- 2018년 11월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508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515만 6천 명)보다 1.3% 감소
-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본 전체 「취업자 수」는 2월부터 10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감소세는 10월 -2.1%에서 11월 -1.3%로 둔화(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2.0%)
- 2018년 11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84만 3천 명)에 비해 1.9% 증가한 85만 9천 명 수준
- 「청년층 취업자 수」는 최근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11월에 증가세로 전환(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0.9%)
- 청년층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하였지만, 전체 취업자 수가 여전히 감소하고 있어 고용 회복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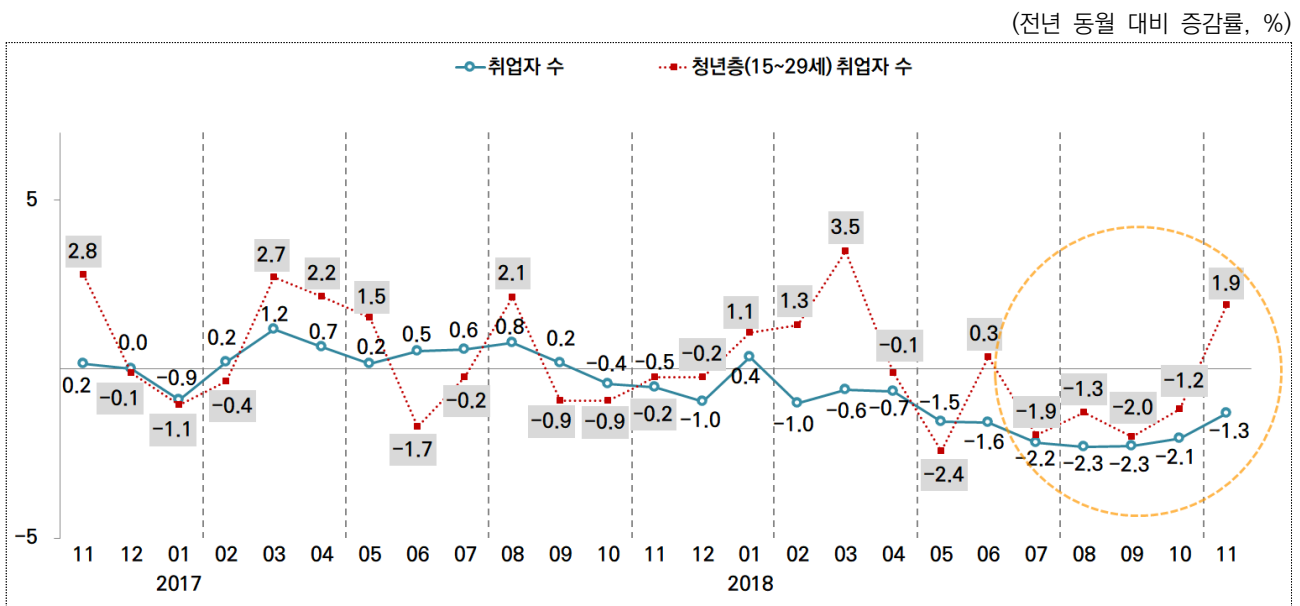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고용통계는 작성 시 근간이 되는 추계인구가 등록센서스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과거 시계열 자료도 등록센서스 인구를 적용하여 보정·공표되었다(2018년 2월 14일). 이에 따라 고용통계의 이전 수치는 모두 변경되었다.

II.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전 분기보다 소폭 하락

4/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5p 소폭 하락

- 2018년 4/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⁴⁾ 기준 94.4로 전 분기 대비 1.5p 하락
- 2017년 2/4분기부터 3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웃돌았던 「소비자태도지수」는 2018년 들어 4분기 연속 기준치 이하를 기록
- 4/4분기 이후 서울시민의 「소비자태도지수」 향방은 고용지표, 가계소득과 서민물가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
- 민생과 직결된 고용지표가 아직 시민이 체감할 정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더불어 가계소득 증가, 서민물가 안정 등도 시민의 경제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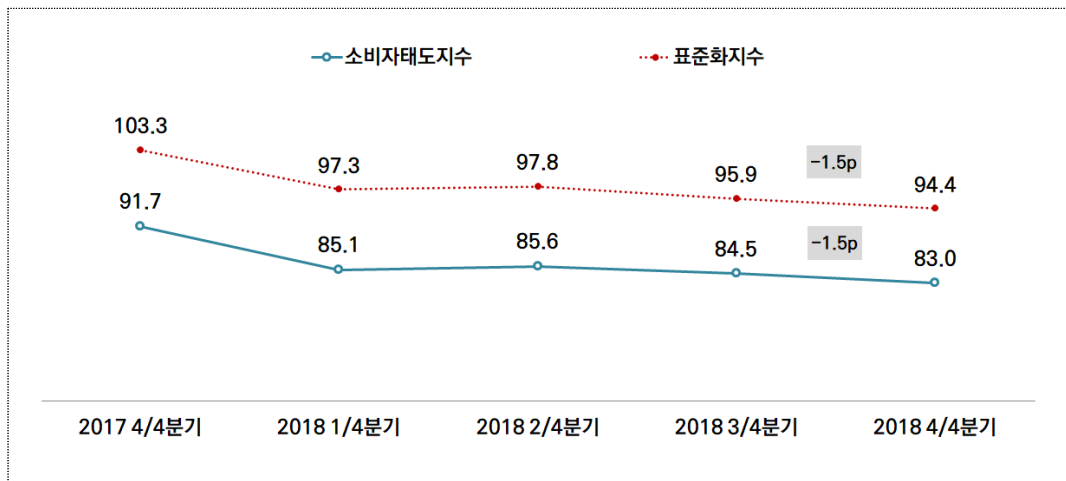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4)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연도별로 시계열 조사되는 결과값이 성별, 가구 수,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한 값을 구한다.

현재생활형편과 미래생활형편 모두 전 분기보다 소폭 하락

- 2018년 4/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0.3p 하락한 87.4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2.7p 하락한 91.1을 기록
- 소득계층별로 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연 가구소득 2,400만 원 미만과 3,600만~4,8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각각 전 분기 대비 16.1p, 2.5p 상승하고, 나머지 소득 계층은 모두 전 분기보다 하락
- 「미래생활형편지수」도 연 가구소득 3,600만~4,800만 원 미만과 6,000만~7,2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하고, 나머지 소득계층은 모두 전 분기보다 하락하였으며, 지수 수준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기준치(100) 이하를 기록
-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본 주된 이유는 경기 불황과 가계소득 감소
- ‘경기 불황’이 31.4%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가계소득 감소’(26.7%), ‘물가 상승’(15.6%), ‘가계부채 증가’(12.9%) 등의 순으로 응답
-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가계부채 증가’의 응답비율이, 40대와 50대는 ‘경기불황’, 60대는 ‘가계소득 감소’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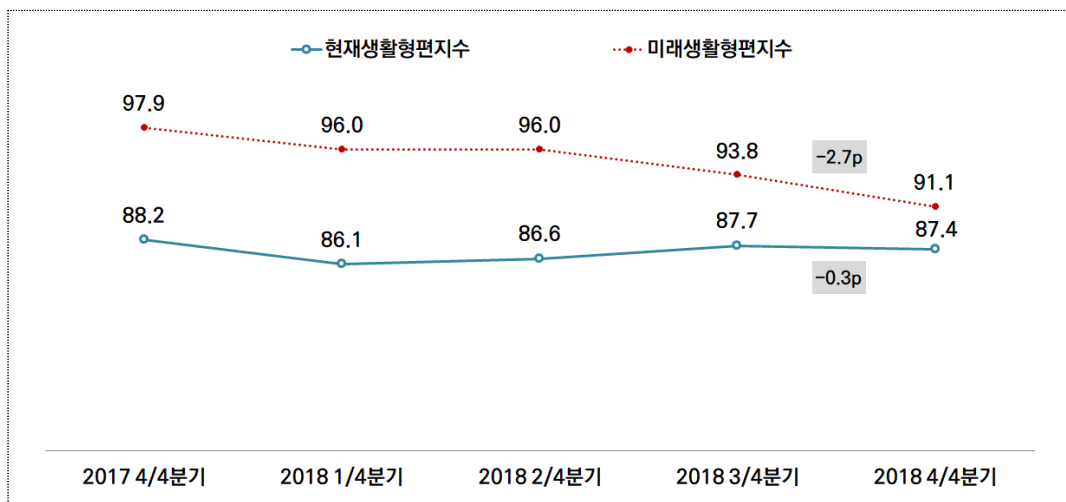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도심권과 서남권에서 전 분기보다 상승

- 2018년 4/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도심권이 91.6으로 가장 높게 조사
 - 그다음은 서남권(90.6), 서북권(87.7), 동북권(85.4) 등의 순이며, 동남권이 84.7로 가장 낮게 조사
 -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의 수준은 도심권과 서남권이 90 이상을 기록하였고, 나머지 권역은 80대 중후반으로 비슷한 수준
- 2018년 4/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도심권이 전 분기 대비 13.5p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그다음으로 서남권이 전 분기 대비 4.4p 상승하였고, 동남권(-2.2p), 동북권(-2.6p), 서북권(-8.1p)은 전 분기보다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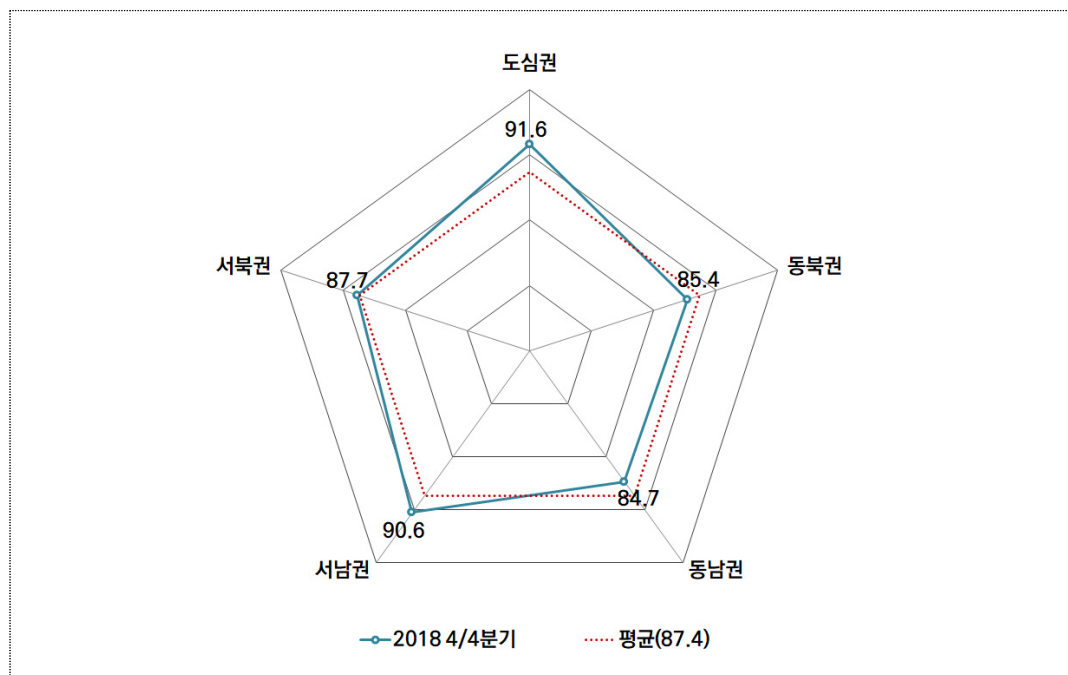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

「현재경기판단지수」와 「미래경기판단지수」 모두 전 분기보다 소폭 하락

- 2018년 4/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9.2로 전 분기 대비 1.2p 하락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018년 1/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상승하면서 70대를 회복하였지만, 4/4분기 들어 소폭 하락하면서 69.2를 기록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서비스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업 생산 부진과 고용지표의 회복 지연 등이 소비자의 체감경기 상승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
 - 연령별로 본 「현재경기판단지수」는 40대 76.7, 30대 이하 71.2, 60대 65.2, 50대 63.0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50대 이상에서 현재 경기를 더 비관적으로 인식
- 2018년 4/4분기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83.6으로 전 분기 대비 2.4p 하락
 - 「미래경기판단지수」는 2017년 4/4분기 94.0에서 하락한 이후 80대 중반 내외에서 횡보
 - 연령별로 본 「미래경기판단지수」도 40대 88.4, 30대 이하 86.9, 60대 79.7, 50대 78.9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50대 이상이 앞으로의 경기판단에 더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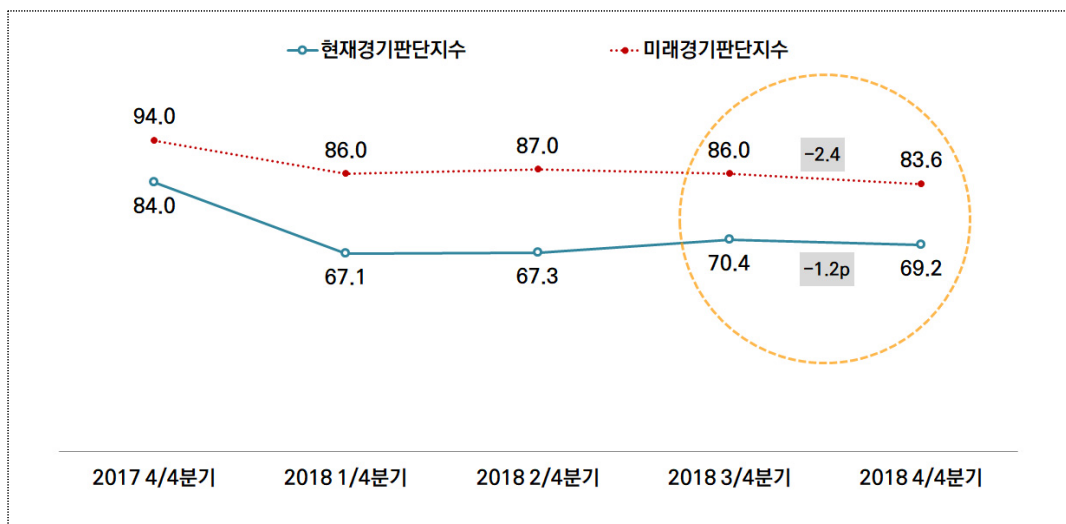


그림 7.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물가 상승, 소비지출 감소, 막연한 불안감 등

-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주로 ‘물가 상승’, ‘소비 지출 감소’, ‘막연한 불안감’ 등으로 조사
- ‘물가 상승’이 36.2%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소비지출 감소’(22.3%), ‘막연한 불안감’(11.9%), ‘부동산 경기 부진’(11.7%), ‘투자심리 악화’(9.2%) 등의 순
- 소득수준이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모두 ‘물가상승’과 ‘소비지출 감소’를 많이 선택해 서울시민은 향후 물가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소비지출 감소를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
- 특히 연 가구소득 2,400만 원 미만, 3,600만~4,800만 원 미만, 4,800만~6,000만 원 미만에서 ‘물가 상승’의 응답비율이 4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
- 또한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물가 상승’의 응답비율이 40대가 45.0%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30대 이하(38.2%), 60대(37.2%), 50대(28.1%) 순으로 조사
- 2018년 11월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0.5%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는 1.9% 상승
- 서울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18년 7월 0.9% → 8월 1.1% → 9월 1.9% → 10월 1.7% → 11월 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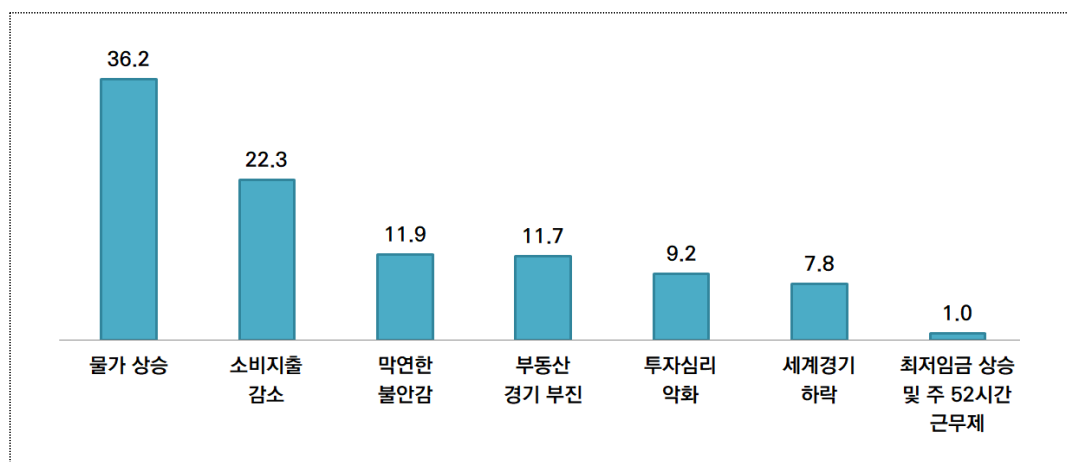


그림 8.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기준치 이상이지만 「미래소비지출지수」는 기준치 하회

- 2018년 4/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2.1로 전 분기 대비 0.5p 하락
 - 4/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소폭 하락하였지만, 2014년 1/4분기부터 꾸준히 기준치(100) 이상을 유지하여 서울시민의 소비활동은 비교적 원활
 - 가구주 연령별로 본 「현재소비지출지수」 수준은 50대(97.2)를 제외하고 모두 기준치 이상인 가운데 전 분기보다 40대와 60대는 상승하고, 30대 이하와 50대가 하락
 - 연 가구소득별로 본 「현재소비지출지수」도 모든 소득계층에서 기준치 이상을 기록
- 2018년 4/4분기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96.2로 전 분기보다 1.9p 하락
 - 가구주 연령별로 본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보다 하락한 가운데 30대 이하와 40대가 기준치 이상을 기록했지만, 50대와 60대는 기준치 이하
 - 연 가구소득별로 본 「미래소비지출지수」는 2,400만 원 미만과 4,800만~6,000만 원 미만 가구만 전 분기보다 상승하고 나머지 소득계층은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지수 수준이 4,800만~6,000만 원 미만 가구만 기준치 이상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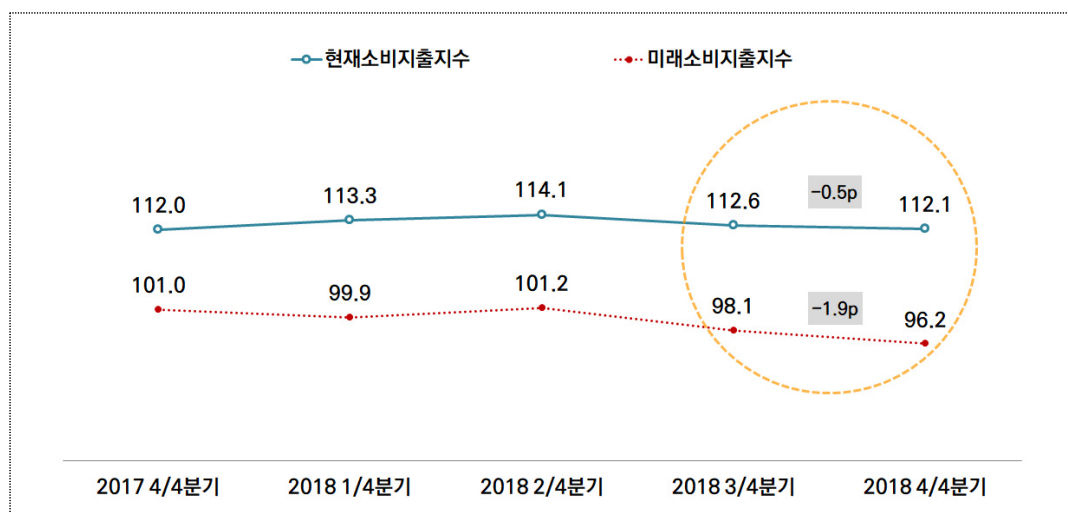


그림 9.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교육비’와 ‘주거비’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기준치를 웃돌고, 나머지 품목은 기준치 이하

- 2018년 4/4분기 ‘교육비’, ‘주거비’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기준치(100)를 상회
 - 4/4분기 ‘교육비’ 지수는 전 분기 대비 4.4p 하락했지만, 지수 수준은 기준치(100) 이상인 107.8로 조사 대상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4/4분기 ‘주거비’ 지수도 전 분기보다 3.5p 하락했지만, 기준치 이상인 101.1을 기록
- 그러나 2018년 4/4분기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문화·오락비’, ‘의류비’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기준치 이하를 기록
 - 4/4분기 ‘식료품비’ 지수는 전 분기에 비해 0.5p 하락한 99.8로 기준치를 소폭 밑돌면서 2018년 중 처음으로 기준치 이하를 기록
 - 4/4분기 ‘교통·통신비’ 지수도 전 분기 대비 2.6p 하락하면서 2018년 중 처음으로 기준치 이하인 97.9를 기록
 - 4/4분기 ‘문화·오락비’ 지수는 전 분기에 견줘 1.5p 하락한 86.7을 기록해 3/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
 - 4/4분기 ‘의류비’ 지수는 전 분기 대비 1.1p 상승한 83.7을 기록하였으나, 지수 수준은 조사 대상 품목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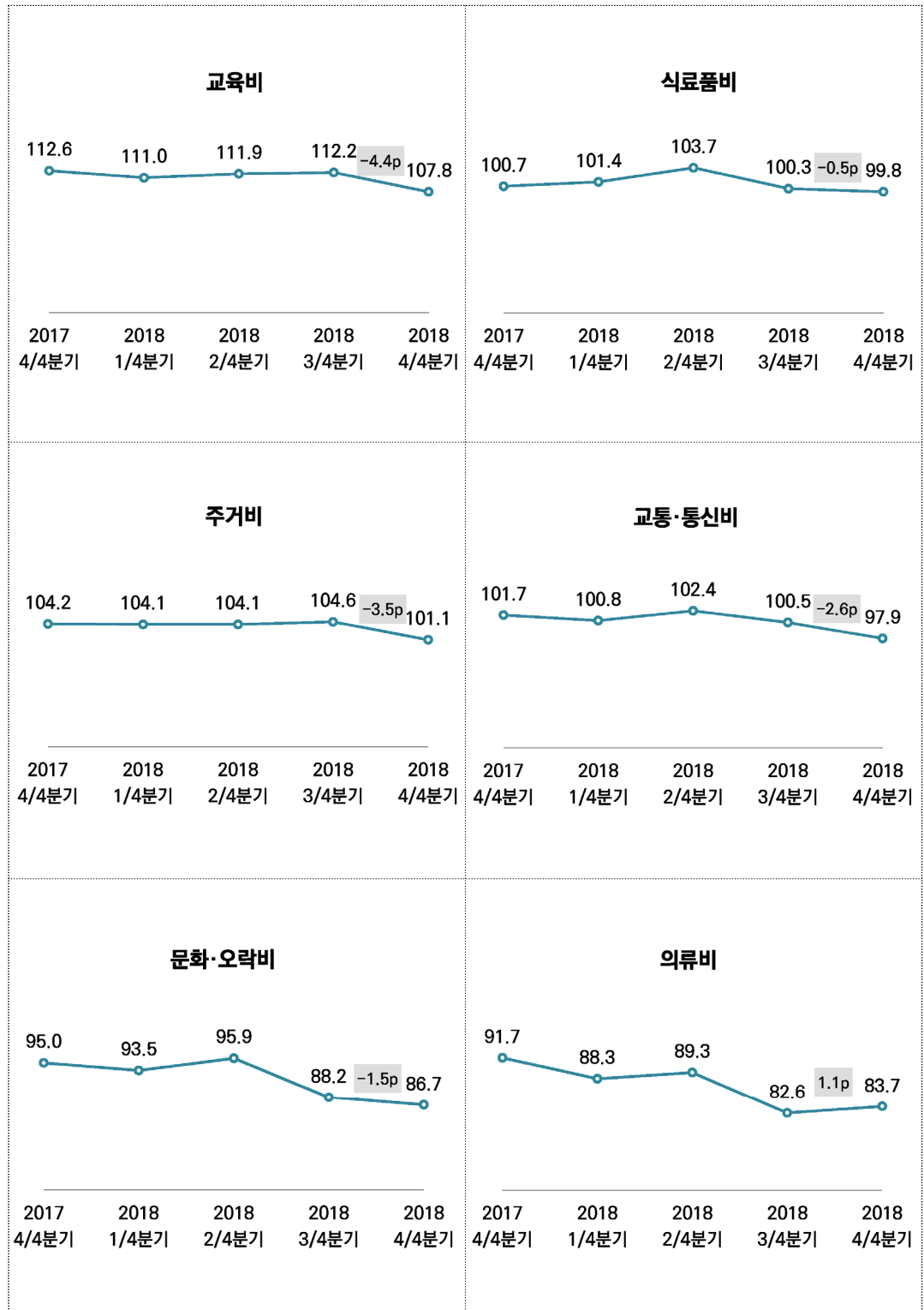


그림 10.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의사와 내구재 구입의사 모두 하락

- 2018년 4/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0.8p 하락한 83.8로 기준치(100) 이하를 기록
- 가구주 연령별로 본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30대 이하와 60대는 상승했지만 40대와 50대가 전 분기보다 하락
- 2018년 4/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2p 하락한 71.4로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수준
- 가구주 연령별로 본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 분기보다 하락하였고,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큰 폭으로 하락
- 이는 9.13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가격 오름세가 둔화되고, 11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향후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
- 2018년 11월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106.8로 전월 대비 0.2% 올랐지만 상승 폭은 축소(9월 1.25% → 10월 0.51% → 11월 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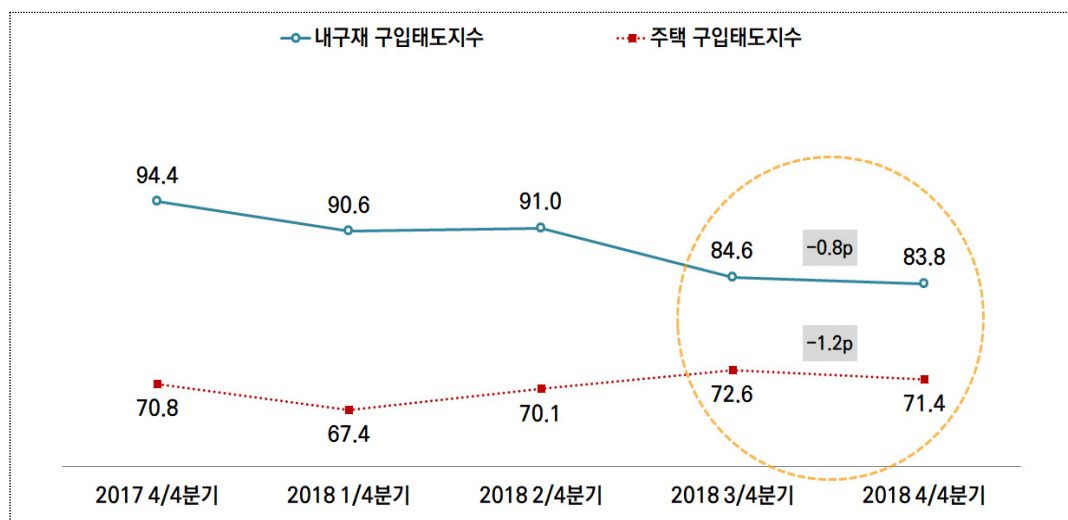


그림 11. 서울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

서울시민의 권역별 주택 구입의사는 서남권과 동북권만 소폭 상승

- 2018년 4/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서남권과 동북권만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 권역은 하락
- 서남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75.6으로 전 분기 대비 1.4p 상승하였고, 동북권도 72.2로 전 분기보다 0.7p 상승
- 반면, 도심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78.3으로 전 분기 대비 6.1p 하락하였고, 동남권은 전 분기보다 5.1p 하락한 63.7, 서북권은 전 분기에 견줘 3.7p 하락한 69.9
- 권역별로 본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의사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
- 일부 권역에서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전 분기보다 상승하였지만 상승폭은 미미
- 특히 모든 권역에서 「주택 구입태도지수」 수준이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고 있어 대다수 시민은 주택구입에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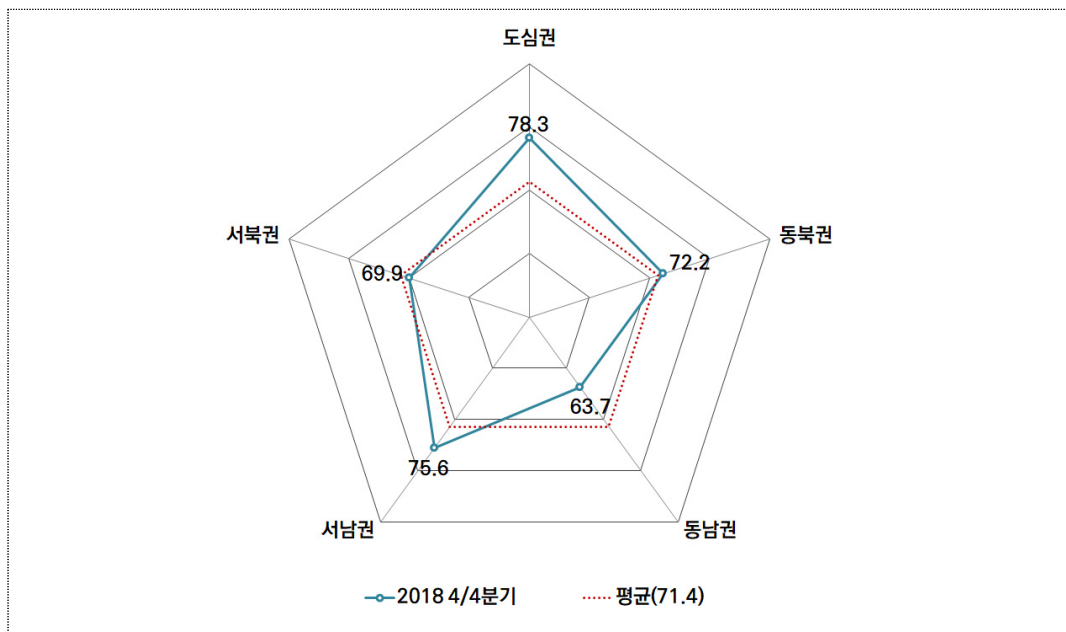


그림 12. 서울의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

「순자산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물가예상지수」 모두 소폭 하락

- 2018년 4/4분기 「순자산지수」는 95.4로 전 분기 대비 1.0p 하락
 - 가계의 순자산이 감소한 이유는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채가 늘었다’(26.5%), ‘지출이 늘었다’(18.2%), ‘금융자산이 줄었다’(11.9%) 등의 순으로 조사
- 2018년 4/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70.6으로 전 분기보다 2.4p 하락
 -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보다 하락하였고, 특히 30대 이하가 전 분기 대비 -4.7p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2018년 4/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149.9로 전 분기 대비 0.1p 소폭 하락
 - 「물가예상지수」는 2017년 3/4분기부터 5분기 연속 상승하다가 2018년 4/4분기에 처음으로 하락
 - 그러나 「물가예상지수」의 수준이 기준치(100)를 크게 웃돌고 있어 시민들의 물가 불안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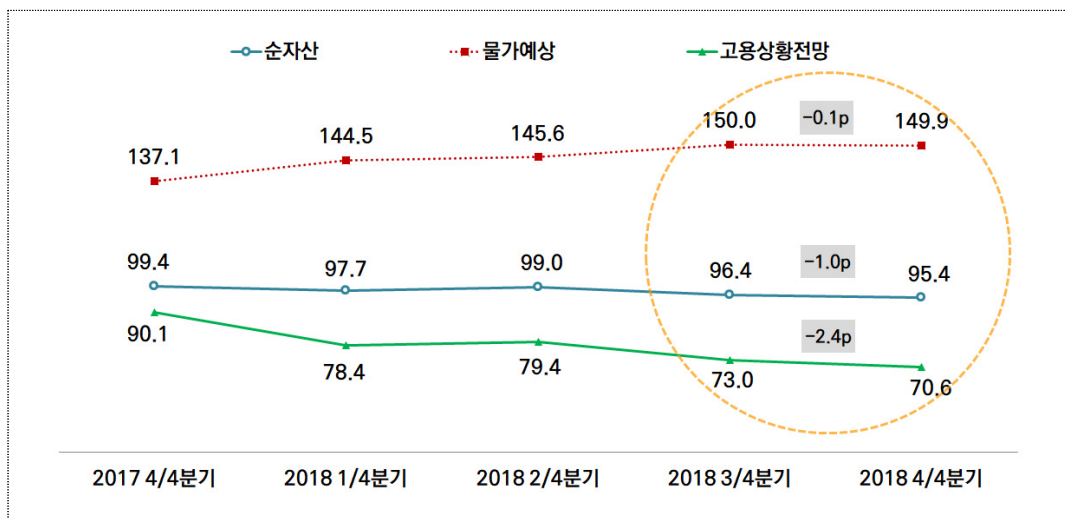


그림 13. 서울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서울지역의 가계 부채 보유 가구는 전 분기보다 소폭 감소

- 2018년 4/4분기에 가계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 대상 가구의 62.3%로 전 분기 대비 0.7%p 감소
- 가구주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68.8%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40대(66.2%), 50대(63.4%), 60대(46.9%) 등의 순으로 조사
- 가계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 대비 부채 상환비율은 21.5%로 전 분기보다 0.5%p 상승
- 가계부채의 상환 형태는 '원리금 상환'이 62.5%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이자만 상환'(32.1%), '상환 안함'(5.4%) 등의 순으로 조사
- 가계 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여전히 '주택관련 자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1순위 기준으로 '주택관련 자금'(53.6%)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생활 자금' (20.3%), '사업 자금'(15.2%), '자녀 교육비 및 학자금'(4.4%) 등의 순으로 조사
- 1~3순위 기준으로 보면, '주택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이 각각 63.6%와 45.2%로 가장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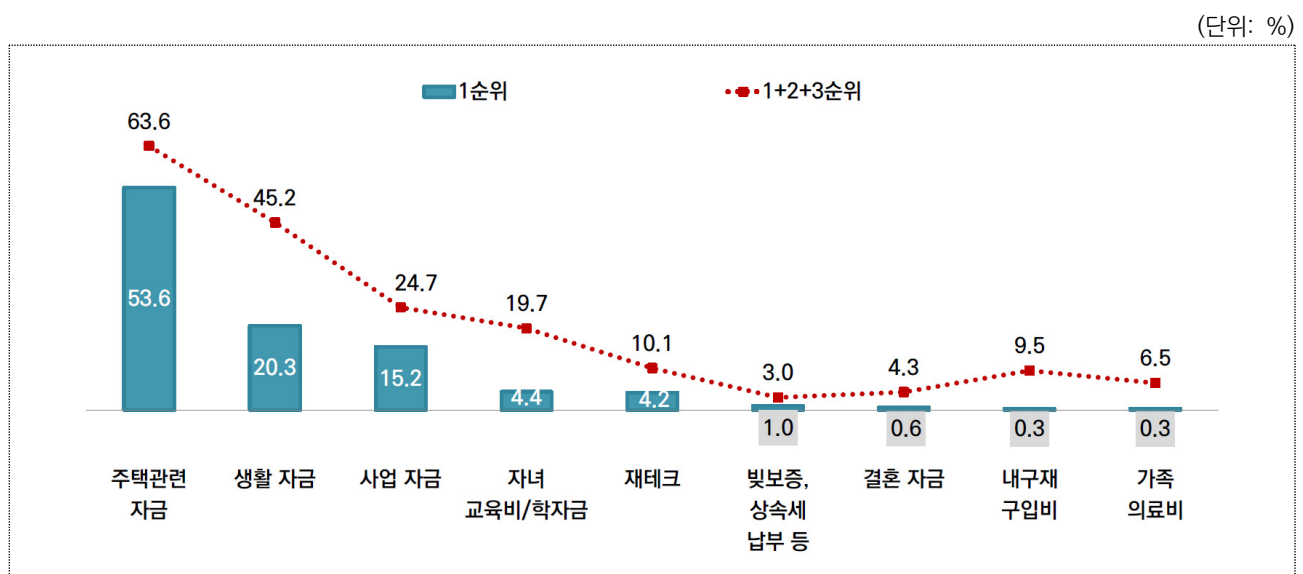


그림 14. 가계 부채의 주 사용용도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2019년 주요 경제 이슈

서울시민의 2019년 경제 이슈 1위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서울시민이 본 내년 경제 이슈 1위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 내년 경제 이슈로 1순위 및 1~3순위 합계의 응답 결과를 보면, 모두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1순위 기준으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가 33.1%로 가장 높은 수준
- 그다음은 ‘부동산 경기’(12.6%), ‘최저임금 인상’(9.2%), ‘생활물가 상승’(7.4%),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5.0%), ‘남북경협’(4.7%) 등의 순으로 조사
- 1~3순위 합계 결과도 53.4%가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를 지목하였고, 그다음은 ‘생활물가 상승’(29.4%), ‘부동산 경기’(29.0%), ‘최저임금 인상’(27.7%),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18.9%), ‘소득양극화’(17.1%) 등의 순으로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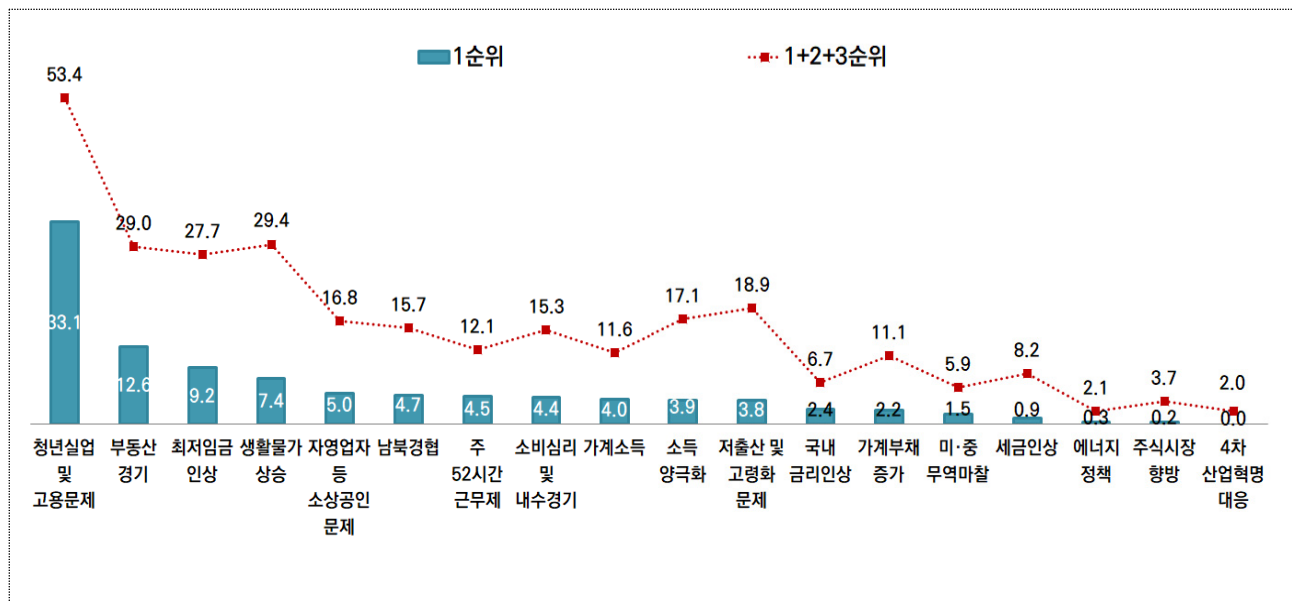


그림 15. 서울시민이 본 2019년 경제 이슈

주: 서울지역 표본 1,013가구 대상 설문조사

서울시민은 대부분 경제 이슈가 내년에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인식

- 각 경제 이슈가 내년에 올해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다수 시민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13개의 경제 이슈 중 기준치(100)를 웃도는 이슈는 ‘4차 산업혁명 대응’뿐이고, 나머지 경제 이슈는 기준치 이하
- ‘4차 산업혁명 대응’이 200점 만점에 102.4점⁵⁾을 차지하고, 그다음은 ‘주식시장’(99.7점), ‘남북경협’(98.0점), ‘에너지 정책’(97.5점), ‘부동산 경기’(96.8점) 등의 순이며, ‘소득양극화’가 87.3점으로 가장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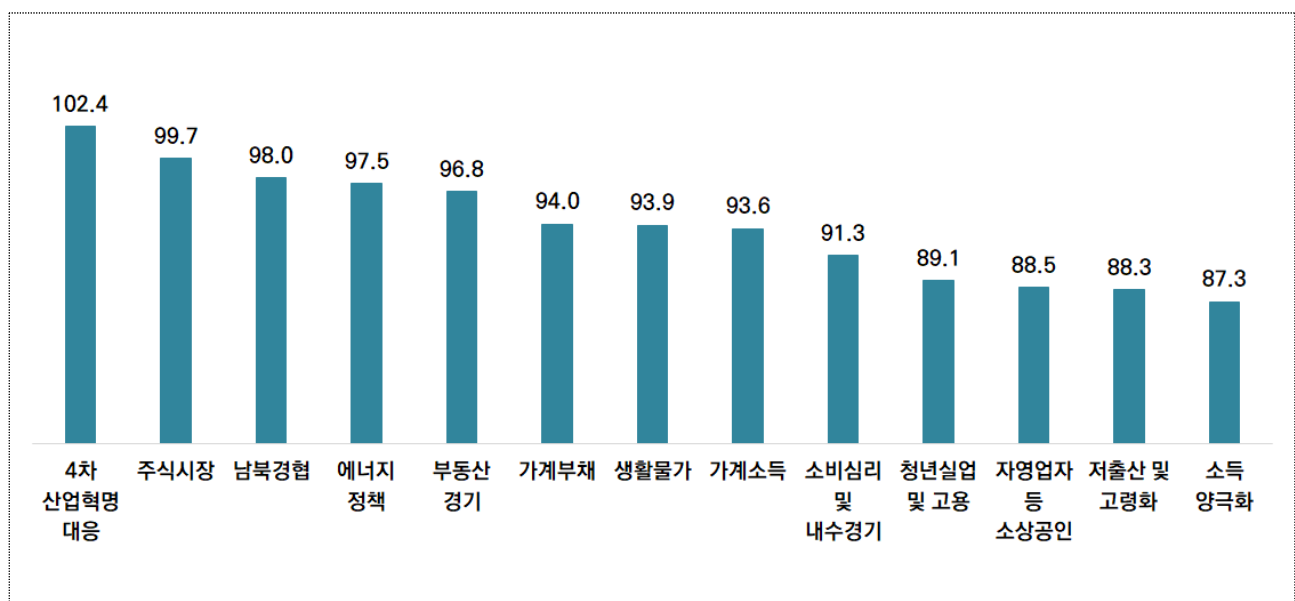


그림 16. 2019년 경제 이슈별 개선 전망 점수

주: 서울지역 표본 1,013가구 대상 설문조사

5) 올해 대비 내년 경제 이슈 개선 전망은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 0점,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 50점, ‘그대로이다’ 100점, ‘약간 개선될 것’ 150점, ‘매우 개선될 것’ 200점을 부여하여 환산하였다.

- 한편 경제 이슈별로 응답 항목을 보면, 개선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경제 이슈는 ‘남북경협’이고,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경제 이슈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 조사
-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남북경협’이 36.6%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4차 산업혁명 대응’(32.6%), ‘부동산 경기’(32.4%), ‘가계부채 증가’(32.0%) 등의 순
- 반면,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49.0%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소득 양극화’(48.3%),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47.7%), ‘청년 실업 및 고용’(46.0%) 등의 순으로 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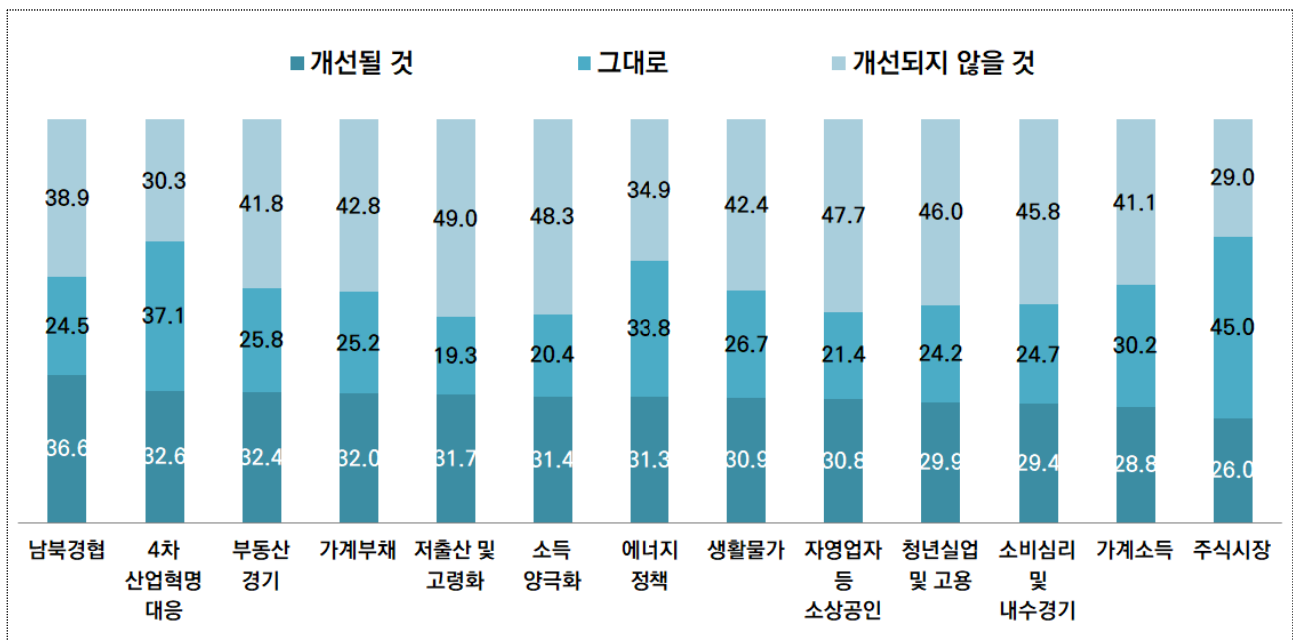


그림 17. 2019년 경제 이슈별 개선 전망

주: 서울지역 표본 1,013가구 대상 설문조사

부록: 2018년 4/4분기 주요 조사결과

- 이 연구는 서울 기준의 분기별 조사이며, 한국은행은 전국 기준의 월간 조사
- 한국은행의 '2018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6.0으로 전월 대비 3.5p 하락
- 분기별 조사라는 차이점 외에 2017년 조사부터 소득 구간 등의 사례 수를 조정한 것도 결과에 반영되어 한국은행 지수와 차이

부록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7년 4/4분기	103.3	88.2	97.9	84.0	94.0	94.4	70.8
2018년 1/4분기	97.3	86.1	96.0	67.1	86.0	90.6	67.4
2018년 2/4분기	97.8	86.6	96.0	67.3	87.0	91.0	70.1
2018년 3/4분기	95.9	87.7	93.8	70.4	86.0	84.6	72.6
2018년 4/4분기	94.4	87.4	91.1	69.2	83.6	83.8	71.4

주: 표준화지수 사용

부록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에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7년 4/4분기	112.0	101.0	99.4	90.1	137.1
2018년 1/4분기	113.3	99.9	97.7	78.4	144.5
2018년 2/4분기	114.1	101.2	99.0	79.4	145.6
2018년 3/4분기	112.6	98.1	96.4	73.0	150.0
2018년 4/4분기	112.1	96.2	95.4	70.6	149.9

이 조사는 서울지역 표본 1,013가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08\%p$ 임(2018년 4/4분기 조사 시점은 2018년 11월 8일~11월 20일)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